

융합된 분산의 연대기 - 뒤라스와 윤

양혜규의 주관적 편집, 2018

마르그리트 뒤라스(1914-1996)와 윤이상(1917-1995)

1910

대한제국은 '경술국치(庚戌國恥)'라 일컬어지는 「한일합병조약」에 의해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다. 1910년 8월 22일 일본 제국과 대한제국의 대표자 사이에 조인된 이 불평등한 조약은 훗날까지 그 합법성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1914

마르그리트 뒤라스는 4월 4일 인도차이나 반도의 사이공 인근 자딘(지금의 베트남 남부)에서 마르그리트 도나디외로 태어난다. 뒤라스의 부모인 앙리 도나디외(1872-1921)와 마리 르그랑(1877-1957)은 프랑스계 식민지 개척자들이었다. 그에게는 피에르(1910년생)와 폴(1912년생)이라는 오빠 두 명이 있었다.

1917

윤이상은 9월 17일 경상남도 남해안에 위치한 통영에서 시인 윤기현과 교육자 김순달의 장남으로 태어난다.(일부 자료에는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세 살 때 통영으로 이주했다고 나와 있다.) 윤이상은 통영에서 성장하면서 접했던 어부들의 노래, 판소리, 곳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1919

기미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이라고도 알려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다. 이는 일제강점기(1910~1945) 초기에 발생한 대중적 항일 운동이었다.

1921

어떤 자료에서는 뒤라스가 7살이 되던 해 12월 4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어머니 마리 르그랑은 지금의 캄보디아 지역에서 농지를 사들여 수입원을 늘리려 했으나, 이 시도는 프랑스식민관료제의 부정부패로 인해 물거품이 된다. 그 지역은 바닷물이 자주 범람하여 경작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었다. 어머니는 홍수를 막기 위한 독을 쌓는데 재산을 쏟아부었고, 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계획 때문에 가족의 재정 상황은 점차 악화된다.

1922

5살의 윤이상은 서당에 입학하여 유교, 도교, 중국 고전을 공부한다.

1924

마리 르그랑은 인도차이나에서 교사직을 맡게 된다. 뒤라스와 그의 두 오빠는 어머니를 따라 처음에는 빈롱으로, 나중에는 사데크로 거처를 옮겨 정착한다.

1925

윤이상은 어려서부터 서양음악에 노출된다. 8살에 일제강점기 초등교육기관이었던 보통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양음악을 접하게 된다. 그는 학교와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들으며, 한국 악기가 하나의 음으로 은은한 소리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르간이 여러 음을 동시에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1929

뒤라스가 15살이 되었을 때 한 연상의 중국인과 만나 그의 연인이 된다. 이 만남은 후에 그가 장편 소설 《연인》(1984)을 쓰는데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의 정체는 아직 모호하다.

1930

윤이상은 1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고 독학으로 작곡을 시작한다. 더불어 첼로, 음악 이론, 화성법을 공부한다.

1931

뒤라스는 사이공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이 시기에 그는 동양계 동급생들보다도 가난한 자신의 가족 형편에 눈 뜨게 된다. 그는 사이공 고등학교에서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를 취득한다.

식민지 시대의 인도차이나에서 보낸 유년 시절은 훗날 집필 활동에 중요한 자원이 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개인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것을 보면, 그의 전기적 사실들은 모순적으로 충돌하는 듯 하다.

윤이상이 처음 작곡한 곡이 통영의 한 무성 영화관에서 연주된다.

1932

뒤라스는 17살에 프랑스로 이주한다. 그는 소르본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을 전공할 예정이었다.

1933

윤이상은 가족과 함께 서울로 상경하여 사립 음악원에 진학한다. 그는 한국에 첫 서양식 군악대를 창설한 독일 음악가 프란츠 에케르트의 한 제자로부터 기본적인 화성학을 배운다. 또한 서울 국립도서관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아르놀트 쇤베르크 같은 서양 고전 음악가들의 곡을 접한다.

1934

윤이상은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자비로 한국의 동요집 《목동의 노래》를 편찬하여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는 일본 제국의 공격적인 시도에 맞선다.

1935

뒤라스는 소르본 대학에서 정치학과 법학 학위를 받는다. 그는 인도차이나를 통치하는 프랑스 정부 기관에서 비서로 일하기 시작한다.

윤이상은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일본 오사카 음악원에서 첼로, 음악 이론 및 작곡을 공부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졸업을 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귀국한다.

1937

뒤라스는 프랑스 식민성에서 일하게 된다.

1939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193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 남성들이 대거 징집되면서 일본 본토의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노무자 ‘모집’ 사업이 시행된다. 초기에는 민간 모집책을 통해, 후에는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동원’이 이루어진다.

뒤라스는 로베르 앙델므와 결혼한다. 파리 생제르맹 데프레의 생 브누아가 5번지에 위치한 그들의 신혼 아파트는 장 주네, 조르주 바타유, 앙리 미쇼, 모리스 메를로퐁티, 에드가 모랭과 같은 작가와 지성인들이 회합하는 장소가 된다.

윤이상은 일찍이 파리에서 유학했던 작곡가 이케노우치 도모지로에게서 작곡을 배우고자 도쿄로 간다.

1940

뒤라스는 극수주의적이고 선동적인 성격의 성명서를 모은 《프랑스 제국》(갈리마르, 파리)을 필립 로크와 공동 집필한다. 그의 결혼 전 성인 노나디외로 출판한 유일한 책이다. 10년 뒤, 뒤라스는 아시아에 행해진 프랑스 제국주의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이 책의 존재를 끊임없이 부정한다.

뒤라스는 식민성 일을 그만둔다.

1941

윤이상은 한국으로 돌아와 항일 저항운동에 가담한다. 그는 이미 여러 지하 활동을 해 오던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여 무기와 폭탄을 제조하고 자체적인 무장을 시도한다.

1942

일본 식민당국은 일본 본토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국가총동원법을 확대 시행한다. 한반도와 위(僞)만주국의 공장과 광산에서 일할 한국인 노동자를 징집하고 필요에 따라 그들을 일본으로 강제 이주시킨다.

뒤라스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비시 정부의 종이 배분국에서 일한다. 이 기관은 자원이 부족한 전쟁 중에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종이를 할당함으로써 특정한 책의 출판 여부를 판단하는 비공식적 검열 기관으로 기능했다.

1943

뒤라스는 남편 로베르 앙델므와 비평가 겸 정치 철학자 디오니시 마스콜로와 함께 나치의 침략에 저항하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조직 MNPGD(전쟁 포로와 강제 수용자를 위한 국가 운동)에 참여한다. 훗날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는 프랑수아 미테랑을 활동 중에 만나게 되고, 쫓기는 그를 생 브누아가 5번지 집에 숨겨 준다.

뒤라스는 출판사 갈리마르와 마스콜로를 통해 프랑스 지식인이자 작가 모리스 블랑쇼를 만난다.

윤이상의 지하 조직이 일본에게 발각되고 그는 강제 징용되어 미곡창고에서 군납 업무를 보게 된다.

1944

8월 25일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독일로부터 해방된다.

당시 작가로서 고군분투하던 뒤라스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태어난 곳, 뒤라스를 배경으로 한 그의 첫 번째 소설 《철면피들》을 출판한다. 이 때 처음으로 뒤라스라는 필명을 사용한다. 같은 해, 아이를 사산하고 얼마 후, 마스콜로와 연인이 된다. 뒤라스는 앙델므, 마스콜로와 함께 PCF(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한다. 6월 앙델므와 뒤라스의 시누이 마리루이즈, 그리고 다른 두 명의 MNPGD 조직원이 뒤편가에 있는 마리루이즈의 아파트에서 체포되고, 미테랑은 가파스로 탈출한다. 체포된 4명은 모두 강제수용소로 보내진다. 9월 경 뒤라스는 전쟁 포로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들의 행방을 전하는 《리브르》 소식지를 발간한다. 앙델므가 부헨발트, 간데르스하임, 다하우의 수용소로 보내지고, 뒤라스는 이때부터 1950년까지 글쓰기를 중단한다. 그는 MNPGD의 일원으로 남는다. 수용소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본명이 샤를 델발인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 피에르 라비에와 터덜터덜 관계를 시작한다. 이 기간에 쓴 그녀의 일기 비슷한 메모가 1985년에 출판된 ‘회고록’의 근간이 된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 한국어로 쓰여진 작곡 일부가 윤이상의 집에서 발견된다. 일본경찰에 체포된 그는 두 달간의 투옥 끝에 미곡창고로 보내져 다시 강제 노동을 하게 된다. 친구로부터 이튿날 다시 체포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카나모토라는 가명으로 위장하여 첼로를 들쳐업고 서울로 도망친다.

1945

미군이 도착하기 직전 4월에 러시아군이 베를린에 당도한다. 이탈리아 파르티잔은 무솔리니를 생포하고 4월 28일에 처형한다. 독일 나치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는 그의 정부인 에바 브라운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내로 맞이하고, 이튿날인 4월 30일에 지하 벙커에서 그녀와 동반 자살한다.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러시아는 일본령 만주를 공격한다. 미국은 일본이 항복하지 않자 8월 6일 히로시마에 이어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다.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적으로 항복함으로써 8월 14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8월 15일 일제의 대한민국 식민 지배가 끝을 맺는다.
소련이 한반도에 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한 두 명의 젊은 미국인 장교가 이를 견제하고자 8월 10일 한반도를 38선 기준의 두 구역으로 분할하기로 성급히 결정한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소련군은 한반도의 북부를, 미군은 한반도의 남부를 점령한다.

미테랑의 주도로 시작된 마스콜로와 조르주 보상의 극적인 구조 노력에 힘입어 앙델르는 프랑스로 돌아온다. 뒤라스는 극도로 쇠약해진 앙델르를 헌신적으로 간호하여 성공적으로 회복시킨다. 뒤라스와 앙델르는 출판사 라 시테 유니베르셀을 설립한다. 부부는 종전까지 마스콜로와 한집에서 살게 된다.

1946
앙델르가 발진티푸스에서 회복된 후 그들은 이혼한다.

결핵에서 회복되자 윤이상은 부산의 한 시립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보살핀다. 또한 1946년부터 1950년까지 통영과 부산의 중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다.

1947
일본 정부는 한국인과 대만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한 외국인등록령을 제정한다.

뒤라스와 디오니시 마스콜로 사이에서 외아들 장 마스콜로가 태어난다. 앙델르는 부헨발트 수용소의 경험을 서술한 《인류》(라 시테 유니베르셀, 파리)를 출판한다.

윤이상은 통영 현악 사중주를 결성하고 첼로 주자를 맡는다.

1948
반대와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한반도에 두 국가가 탄생한다. 남쪽에는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북쪽에는 9월 9일 김일성(1912~1994)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 출범한다. 그는 사망 직전까지 북한의 첫 번째 최고지도자였다.

1949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다.

윤이상은 여섯 편의 가곡 모음집 《달무리》를 출판한다. 수록된 곡들은 한국 민요의 5음계로 구성되고 서양식 화음으로 편곡된 것이 특징이었다.

1950
뒤라스는 공산당으로부터 수정주의자로 몰려 앙델르, 마스콜로와 함께 탈당한다. 그러나 이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평생 공산주의자였다고 밝힌다. 뒤라스는 1950년 즈음 전업 작가로서의 명성을 공고히 한다. 같은 해, 그는 나중에 두 차례 영화로 각색된 자전적 소설인 《태평양을 막는 방파제》(갈리마르, 파리)를 출간한다. 이 소설에서 농지에 범람하는 해수를 막고자 독을 세우려 했던 어머니의 반복되는 실패와 시도가 그려진다.

그는 연이어 《지브롤터의 선언》(갈리마르, 파리, 1952), 《타르키니아의 작은 말들》(갈리마르, 파리, 1953), 《은종일 숲속에서》(갈리마르, 파리, 1954), 《광장》(갈리마르, 파리, 1955년)을 출간한다.

윤이상은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사범학교에서 국어교사 이수자를 만난다. 윤이상의 건강과 재정 상태, 작곡가라는 직업에 우려를 표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월 30일 결혼식을 올린다.
11월 20일 그들의 딸 윤 정이 태어난다.

1950-1953
1950년 6월 25일 북한과 남한 간에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윤이상은 6.25 전쟁 참전을 거부하며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믿을 수 없다고 밝힌다. 이 시기에 그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와 실내악곡을 작곡한다. 또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영화 배경음악을 작곡한다.

1953
7월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적인 7.26운동 세력과 동맹국들이 쿠바 폴렌시오 바티스타 대통령의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쿠바 혁명을 일으킨다.

한국전쟁 이후, 윤이상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게 된다.

1954
9월 1일 윤이상의 아들 윤우경이 태어난다.

1954-1962
프랑스 식민 지배에 반해 알제리 민족해방전선이 주도하는 알제리 독립전쟁이 시작되고, 알제리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다.

1955
윤이상은 당시 남한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서울시 문화상을 받는다. 작곡의 틀이 엄격히 제한된 12음 기법에 대해 저술한 요제프 루퍼의 일어 번역본을 읽은 그는 이 상금으로 유럽에 가서 새로운 형식의 음악을 공부하기로 마음먹는다.

1956
뒤라스와 클로드 마르탱이 공동 연출한 <광장>이 스튜디오 데 샹젤리제에서 공연된다.

윤이상은 가족을 한국에 남기고,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토니 오뱅과 피에르 르벨 밑에서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간다. 그는 서울을 출발하여 도쿄, 홍콩, 이스탄불을 거쳐 열흘간의 여정 끝에 파리에 도착한다.

1957
뒤라스와 마스콜로가 헤어진다.
뒤라스는 1957년부터 1958년까지 좌파 잡지인 《프랑스 옵세르바퇴르》에 기고한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덜 알려진 단체나 일반인의 세계에 관한 것으로, 개인의 일상적 경험의 질감을 서술하면서 이를 정치적 이슈와 연결 지었다.

윤이상은 베를린 음악대학의 보리스 블라허에게서 작곡을 사사한다. 만주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자란 블라허는 윤이상에게 동양적 음악 전통을 지키라고 조언한다. 윤이상은

또한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제자이자 일찍이 음렬주의에 대한 그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글의 저자인 요제프 루퍼로부터 12음 작곡 기법을 배운다.

1958

뒤라스의 소설 《광장》이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모데라토 칸타빌레》(에디시옹 드 미뉴, 파리)가 그 뒤를 잇는다. 이 시기부터 그의 후기 작업에서 주요하게 다룬 주제인 성적 욕망, 사랑, 죽음, 기억에 대한 관념이 등장한다.

윤이상은 다름슈타트 국제 하계 현대음악 강좌에 참가하고, 거기서 백남준과 노무라 요시오를 만난다. 당시 현대 음악의 중심이었던 다름슈타트를 경험하면서 그는 아방가르드 형식과 사상을 접하게 된다. 윤이상은 동양 철학과 글을 통합시킨 존 케이지의 실험에 고무되어 동서양의 음악 개념을 통합한다.

1959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선봉 혁명 조직 7.26운동이 폴헨시오 바티스타의 독재 정권을 전복시킨다.

9월 13일 소련의 루나 2호가 인류가 만든 물체 최초로 달의 표면에 도달한다.

영화감독 알랭 레네의 요청으로 뒤라스는 <히로시마 내 사랑>의 각본을 쓰게 된다. 많은 관심을 받은 이 영화로 인해 뒤라스는 영화 시나리오에 집중하게 된다. 이후 뒤라스는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 오른다.

9월 4일 윤이상의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1959)이 다름슈타트 국제 하계 현대음악 강좌에서 초연된다. 이를 후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1958)이 헤르만 크류이트 연주로 네덜란드 빌토벤의 가우데아무스 음악 주간에서 초연된다. 윤이상은 이 곡의 작곡을 위해 제2비엔나악파의 피아노 작품을 참조한다. 그는 독일 크레펠트로 거처를 옮긴다.

1960

뒤라스는 앙텔므, 장폴 사르트르, 알랭 로브그리에, 앙리 르페브르, 알랭 레네와 더불어 '121인 성명서'에 서명한다. 이 성명서를 통해 121명의 지식인들은 프랑스의 알제리 탄압과 알제리와의 전쟁에 반대한다. 뒤라스의 《모데라토 칸타빌레》가 피터 브룩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고, 잔느 모로와 장 폴 벨몽도가 주연을 맡는다. 모로는 지루한 삶을 살아가는 대형 철강 제조업자의 부인 역을 맡는다. 그녀의 삶은 한 여인이 연인에 의해 살해 당하는 살인 사건을 목격하며 뒤바뀐다. 이 격렬한 사랑에 매료된 여주인공은 벨몽도가 연기하는 남성과 병적인 관계를 시작한다. 1960년대 8권에 달하는 소설을 출간한 뒤라스는 알코올 중독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

켈른에서 열린 국제현대음악협회 축제에서 두안 판둘라가 이끄는, 프라하의 전설적인 노박 사중주단이 윤이상의 <현악 4중주 3번>(1959)을 초연한다.

1961

한국에서 박정희의 조직 및 실행 하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다.

잭슨 폴록의 화풍에서 영감을 얻은 윤이상의 <교향악적 정경>(1960)이 마하엘 길렌의 지휘로 다름슈타트에서 초연된다. 9월 윤이상의 부인 이수자가 독일로 건너와 남편과 합류한다. 지명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윤이상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다. 그는 한국문화개발재단으로부터 받은 상금과 라디오 방송국에서 동아시아 음악 전문가로 받는 월급으로 자신과 아내의 생계를 이어간다.

1962

프란시스 트레비스의 지휘로 12음 기법과 한국의 불교 음악 전통을 접목한 윤이상의 관현악곡 <바라>(1960)가 베를린에서 초연된다. 곡의 제목은 한국의 불교무용인 바라춤에서 따온 것으로, 바라를 들고 불단 앞에서 행진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이 승우는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바라(또는 파라)는 심벌즈와 비슷한 한국의 타악기이다. 살짝 구부러진 이 금속 원반은 대부분 한 쌍으로 이루어져 한국의 특정한 불교 제례의식에서 사용된다.

초기 작품들이 대체로 호평을 받고 있던 반면, 이 시기에 윤이상은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힌다. 윤이상의 음악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연주자들로부터 때때로 거절과 부정적인 평을 받는다. 이를 계기로 그는 의식적으로 악보기호를 단순화한다.

1963

윤이상은 북한에 위치한 고구려 후기의 벽화고분인 강서대묘를 방문한다. 벽화는 6-7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신도로, 네 가지 수호신, 즉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를 묘사하고 있다. 수호신들은 동서남북의 방위와 사계절, 28수의 별자리와 연관될 뿐 아니라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음양의 조화를 유지한다고 여겨진다. 장식 없는 배경에 그려진 수호신들은 위엄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생동감 있는 필치로 화려하게 채색된 이 벽화는 동양의 회화 중에서도 손꼽히는 작품 중 하나이다.

1964

뒤라스는 제라르 자를로와 공동으로 텔레비전용 영화 <대단할 것 없는>의 각본을 집필한다. 《롤 v. 슈타인의 항홀》(갈리마르, 파리)이 출간된다.

윤이상의 딸과 아들도 독일에 있는 부모와 합류한다. 베를린에서 작업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포드재단 지원금을 받게 된 윤이상은 베를린에 정착하기로 결정한다.

1965

뒤라스는 <은종일 숲속에서>를 무대에 올린다. 《희곡: 광과 숲, 광장, 라 뮤지카》(갈리마르, 파리) 그리고 《부영사》(갈리마르, 파리)가 출간된다.

윤이상의 <류통의 꿈>(1965)이 베를린에서 초연된다. 이 오페라는 전주곡과 네 개의 꿈 이미지, 그리고 후주곡으로 구성된다. 대본은 14세기에 씌여진 마치원의 중국 도교곡을 바탕으로, 한 유교 학자가 도교로 개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6

윤이상의 대관현악을 위한 <예악>(1966) 초연이 에른스트 보어의 지휘로 도나우에징엔에서 이루어진다. <예악>은 윤이상 특유의 주요음과 주요음향기법을 이용해 한국 궁중음악의 정취를 자아내는 제례적 특징을 지닌다. 한국의 박(拍, 나무로

된 다편음 타악기)과 태국 탐탐(혹은 동라銅囉) 같은 동양의 악기들을 사용한다.

윤이상은 미국의 아스펜과 댕글우드 페스티벌에서 두 달간 수학하고 강의한다.

1967

6월 17일 윤이상은 한국 중앙정보부에 의해 서베를린에서 납치된다. 그는 본을 거쳐 서울로 압송되고, 간첩죄로 박정희 정부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다. 시인 천상병, 화가 이용노, 그 외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과 함께 수감된 그는,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서 체제 전복을 꾀했음을 자백하도록 강요받는다. 중앙정보부에 따르면 이후 동베를린(동독) 사건으로 불리게 된 이 사건에 총 194명의 지식인, 예술가, 학자, 엘리트 등이 연루되었다고 한다. 10월에 윤이상은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구치소에서 작곡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다.

1968

학생 점거 시위가 한창이던 5월 초, 뒤라스는 《르 몽드》에 기고된 학생들의 지지 청원서에 서명한다. 5월 20일 학생-작가 행동위원회가 결성되고, 뒤라스, 앙텔르, 마스콜로, 블랑쇼 등이 합류한다. 이 시기 가장 유명한 표어 중 하나인 '포석 밑에 해변'은 뒤라스가 쓴 것으로 여겨진다.

윤이상은 옥중에서 세 작품을 연속해서 작곡한다. 이미 독일에서 작곡을 시작한 단막 오페라 <나비의 미망인>(1967/68)은 2월 5일 완성되었다. 이 작품은 꿈과 영혼의 이동에 관한 중국의 민간 설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를>, 그리고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영상>을 작곡한다. <영상>은 1963년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위치한 강서대묘를 방문했을 때 본 사진도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다. 그는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이송된 병실에서 감시를 받으며 이 곡을 작곡한다.

1969

미국의 아폴로 11호는 7월 20일 달에 착륙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다.

학생-작가 행동위원회의 해산 후 6월부터 7월까지 <학생-작가 행동위원회, 일 년 후>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글 5편이 《레트르 누벨》에 게재된다. 뒤라스와 블랑쇼가 각각 한 편씩, 마스콜로는 세 편의 글을 쓴다. 뒤라스의 장편 영화 <파괴하라, 그녀는 말한다>가 개봉한다. 영화는 그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1968년 5월의 학생 운동과 총파업을 자양분으로 삼는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와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이 앞장선 국제적인 구명운동, 독일 외무부와 지인들의 노력 끝에 윤이상은 2월 말에 석방되고, 앞서 풀려난 아내와 함께 3월 30일 서베를린으로 돌아온다. 그 후 1971년까지 하노버 음악연극미디어 대학교에서 작곡을 가르친다.

1970

한국 공장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당시 22세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인 전태일(1948-1970)이 공공장소에서 분신 항거 자살한다. 그의 죽음은 한국에서 노동조합 운동의 형성을 이끌었다.

1970년대는 뒤라스에게 영화 제작의 시기였다. 그는 노폴르샤토의 집에 집거하며 다수의 영화를 촬영한다. 뒤라스는 앙텔르와 블랑쇼에게 헌정된 《아반 사바나 다비드》(갈리마르, 파리)를 출간한다. 여기서 유대인을 어떠한 국가권력에도 순종하지 않고 망명과 익명을, 그리고 실패를 추구하는 가장 진보적인 혁명가들로 묘사한다.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그의 영화 <황색 태양>(1971)에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다뤄진다.

1971

1971년부터 1973년까지 뒤라스는 <나탈리 그랑제>, <간지스 강의 여인>, <황색 태양>의 각본 및 연출을 맡는다. 뒤라스와 두터운 친분을 나누게 되는 잔느 모로와 제라르 드파르디외(그의 첫 영화배역이었다)는 <나탈리 그랑제>에서 배역을 맡는다. 뒤라스는 이 영화가 집과 어린아이의 폭력을 다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집의 이전 소유자가 문맹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섬뜩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뒤라스는 사람들이 자살하기 위해 집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지적하는데, 영화에서도 격양된 장소로서의 집의 개념을 상기시킨다. 영국 저술가 엠마 월슨은 뒤라스의 노트 중 한 문구를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집에는 가족의 공포 역시 새겨져 있다, 도피의 필요성, 전적인 자살 충동.”

윤이상은 서독 시민권을 획득한다. 세 소프라노와 관현악을 위한 <나모>(1971)가 5월 4일 베를린에서 초연된다. ‘나모’는 산스크리트어로 ‘귀의(歸依)’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한국 무당의 발성 방식을 참조한다. 그의 대작 오페라 <요정의 사랑>(1969/70)은 한스 켄더 감독으로 킬에서, <자원들>(1971)은 10월 22일 뉘른베르크에서 초연되었다.

1972

2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8일간 머무른다. 이 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의 최고지도자 마오쩌둥을 만나고 저우언라이 총리와 ‘상하이 코뮤니케’에 서명한다.

볼프강 자발리슈는 1972년 뮌헨 올림픽의 개막 축전에서 윤이상의 <심정>(1971/72)의 초연을 지휘한다.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로 알려진 한국 설화 심정전을 원작으로 한다. 눈 먼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빠져 자신을 희생한 뒤 환생한 심정의 서사적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 그가 전후에 개최된 독일 올림픽 관련 음악행사에서 이 곡을 선택한 동기를 돌아보게 된다.

윤이상은 베를린 예술대학교의 정교수가 되어 1985년까지 재직한다.

1973

1973년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이 석유수출 금지를 선언하면서 석유위기가 시작된다.

뒤라스의 《인디아 송》(갈리마르, 파리)이 출간된다.

윤이상은 훗날 한국의 대통령이 될 민주화 운동가 김대중(1924-2009)이 도쿄에서 한국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 납치되자 이를 계기로 조국의 민주주의와 남북 통일을 위한 참여적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의 작곡가 레지던시에 초대된다.

1975

1955년 11월 1일에 시작된 베트남 전쟁은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과 함께 막을 내렸다.

뒤라스는 <인디아 송>의 영화 제작을 연출한다. 큰 키에 가냘픈 체구의 여배우 델핀 세리그가 1938년대 인도의 프랑스 부영사의 문란한 아내 안마리 스트레테르를 연기한다. 세리그는 전투적인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뒤라스, 모로, 시몬 드 보부아와 함께 '343인의 선언'(낙태 반대 선언)에 서명한다. 뒤라스는 그의 영화 <라 뮤지카>(1966)와 <박스터, 베라 박스터>(1977)에도 출연한 세리그에 관한 기사를 《보그》지에 기고한다. 퇴폐, 열정, 상실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인디아 송>은 인도를 배경으로 하지만, 촬영은 전적으로 볼로뉴 저택(로스자일드 궁)에서 진행되었다. 뒤라스는 <히로시마 내 사랑>의 각본 작업을 위해 히로시마를 방문한 적이 없는 것처럼, 18대에 방문한 적 있는 켈커타와 친숙해지지 않는 편을 택한다. 이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측면은 동시 녹음을 하지 않고, 등장하는 어떤 배우도 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뒤라스는 언젠가 이를 '목소리의 영화'라고 표현한 적 있다. '외부'에서만 나오는 목소리는 배우들의 연기에 동반되지 않는 반면 카를로스 달레시오가 작곡한 피아노 왈츠는 영화 전반에서 반복된다.

동양의 사상과 기법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윤이상의 작곡은 이 시기까지 주로 12음계의 틀 안에 있었다. 그의 많은 곡명 또한 동양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 1975년 이후에야, 비로소 그는 교향곡이나 소나타 같은 유럽식 제목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1976

뒤라스는 영화 <온종일 숲속에서>와 <켈커타 사막의 베니스라는 그의 이름>을 제작한다. 후자의 줄거리는 <인디아 송>으로 회귀하는데, 영화는 촬영 장소였던 버려진 저택에서 카메라가 이리저리 헤매는 동안 배우의 연기 없이 온전히 보이스오버만을 통해 구성된다. <켈커타 사막의 베니스라는 그의 이름>은 <인디아 송>을 극단으로 복기하는, 즉 '텍스트의 영화'로서 배우 위주의 영화적 관습을 파괴한다.

윤이상의 <첼로 협주곡>(1976)은 첼리스트 지그프리드 팔름과 프랑스 루아르 필하모니 관현악단 공연으로 3월 25일 초연된다. <첼로 협주곡>은 악기의 기술, 작곡 스타일, 작곡의 개인사적 동기 등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윤이상은 밝힌 바 있다. 이 곡의 독주 부분은 연주의 높은 난이도로 악명이 높다. 이 작품은 자유라는 개념을 다루며, 한국에서 석방된 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첫 작품이다. 도쿄에서 열린 제일 망명한국인 회의에서 한국 중앙정보부는 다시 한번 그를 납치하려 시도했으나 경호원들의 저지로 실패한다.

1977

뒤라스는 <트럭>의 각본을 쓰고 감독을 맡는다. 상영 시간이 88분인 이 영화는 제라르 드파르디외와 뒤라스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대본을 함께 읽는 구성이다. 이는 노플르샤토에 있는 뒤라스의 집 거실에서 촬영된다. 그는 미셀 포르트와 공저로 《마르그리트 뒤라스가 사랑하는 곳》(에디시옹 드 미뉴, 파리)을 출판한다.

윤이상과 루이제 린저의 저서 <상처 입은 용: 생과 작품에 대한 작곡가와와의 대화>(S. 피셔, 프랑크푸르트)가 출판된다. 윤이상은 1984년까지 일본에서 결성된 한국민주민족통일해외연합(한민련)의 의장직을 맡는다. 이 단체는 재외동포 지원 및 통일에 힘을 썼다. 윤이상은 오보에, 하프, 소관현악을 위한 <이중협주곡(견우와 직녀 이야기)>을 작곡한다. 그의 절친한 지인이자 오보에 거장 하인츠 홀리거가 독주자로 참가하고,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초연된다. <이중협주곡>에서 윤이상은 동양 설화로 회귀한다. 하프를 뜯는 공주와 송(중세의 목관악기)을 연주하는 목동이 사랑에 빠지지만, 이를 받아드리지 못하는 왕은 이들을 우주 반대편으로 갈라놓고, 7월 7일 일년에 단 하루 우주의 중간지점에서 만날 수 있게 한다. 주제에 대응하여, 작품의 구성은 발전보다는 계승의 원칙을 따른다. 전설에 따르면 7월 7일 이전에는 까치와 까마귀를 거의 볼 수 없으며 까치와 까마귀가 돌아오면 이마에 달린 깃털이 사라진다고 한다. 어린이들은 까치와 까마귀가 연인들의 재회를 위한 다리를 만들 때 깃털을 잃는다고 알고 있다. 윤이상의 작품에서 이 이야기는 외세에 의해 결정된 한국의 분단을 비유적으로 암시한다. 하늘에서 1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통일의 기회를 위한 협상은 성공하지 못한다.

1979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중국 대륙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등 중국을 외교적으로 완전히 인정한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된다. 10.26 사태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18년간의 군사 통치는 끝난 듯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 당시 대위였던 전두환 육군 소장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는데, 이는 오늘날 12.12 군사 반란으로 불린다.

1980

5월 18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항쟁은 군사정권에 대항한 대규모 시위를 보여주었다. 박 대통령 독재 정권의 갑작스러운 몰락으로 생긴 정권의 공백은 대한민국에 민주화 운동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5월 17일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정치활동과 언론취재는 축소된다. 5월 18일 광주의 전남대학교가 휴교 조치되자 이에 굴복하지 않는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고 군인들과 충돌한다. 폭력은 그 후 며칠간 악화되었고 군사우력은 진압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이 시기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라스는 《복도에 앉은 남자》(에디시옹 드 미뉴, 파리)와 《88년 여름》(에디시옹 드 미뉴, 파리), 《초록빛 눈》(파이에 뒤 시네마, 파리)을 발표하며 왕성한 한 해를 보낸다. 언젠가 뒤라스는 당시 많은 작품이 술잔을 비운 상태에서 집필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뒤라스는 철학과 학생이자 그의 열렬한 팬 안 앙드레아를 만난다. 안 앙드레아는 뒤라스와의 나이, 성적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비서, 배우, 연인이 된다. 몇 년이 흐른 뒤, 뒤라스는 《안 앙드레아 스테네르》(P.O.L, 파리)에서 그들의 관계에 대해 글을 쓴다.

광주항쟁에 대한 응답으로 윤이상은 솔로 칸타타 <밤이여 나뉘어라>를 작곡한다. <밤이여 나뉘어라>는 넬리 작스의 시를 인용하여 어둠의 보편적 본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유대인이던 시인은 베를린에서 스토홀름으로 추방 당했던 그녀의 나치 독재정치 경험에 대해 서술했다.

1981

뒤라스는 뮐 오지예와 안 앙드레아 주연의 <아가타와 끝없는 독서>의 각본을 쓰고 연출한다. <아가타와 끝없는 독서>의 남은 소재로 <대서양의 남자>를 제작한다. <대서양의 남자>에는 앙드레아가 홀로 등장하고 이미지가 제거된 블랙

프레임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뒤라스의 보이스오버가 실린다.

서독 방송국 WDR의 의뢰로 윤이상은 광주항쟁에 대한 관현악곡 <광주여 영원히>를 작곡한다. 첫 도입부에 젊은 시위자들의 활력을 실로폰과 글로켄슈필로 표현한 후 총성 같은 리듬을 금관악기군으로 표현했다.

1982

뒤라스는 《사바나 베이》(에디시옹 드 미뉴, 파리)를 집필한다.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파리 아메리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다. 이 시기 뒤라스의 글은 고독과 사랑의 불가능성에 관련된 자기 파괴를 다룬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디시옹 드 미뉴, 파리)이 출간된다. 2인칭 시점에서 서술되는 이 중편 소설은 ‘당신(vous)’과 ‘그녀(elle)’의 계약으로 성립된 방들을 이야기한다. ‘그녀’는 ‘당신’을 ‘병’이라 명명하며 ‘당신’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음을 정의한다. 뒤라스는 이 작품을 연극무대에 올리거나 영화로 각색할 경우 지켜야 할 지시사항을 남겨두었으나 생전에 이 작품을 직접 연출하지 않는다. 레슬리 힐의 《마르그리트 뒤라스: 종말론적 욕망》을 인용하자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글과 연극무대의 관계는 뒤라스의 서로 다른 성적 지향성 간의 관계가 내포한 해설을 제공한다. 성적이든 문학적이든 글과 무대의 만남은 이미 항상 잘못된 만남이라 할 수 있다. 뒤라스의 글이 허락하는, 예상 가능한 유일한 관계 방식은 실상 관계의 부재 뿐이다.”

윤이상의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회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후 평양에서는 매해 윤이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1983

모리스 블랑쇼는 프랑스 철학자 장 퉁 남시의 《무위無爲의 공동체》(1983년 기사로 게재되고, 1986년 책으로 출간된다; 크리스티앙 부르구아, 파리)에 대한 비평문 《밝힐 수 없는 공동체》(에디시옹 드 미뉴, 파리)에서 뒤라스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언급한다. 코호넨 쿠키스마는 “뒤라스의 서사는 블랑쇼에게 두 존재 간의 친밀하고 열정적인 관계의 예시일 뿐 아니라 텍스트적 만남을 비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문학 공동체가 마치 연인들의 공동체처럼 궁극에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반사회적이고 탈구조적인 공동체에 속하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서술한다.

1984

70세가 되던 해, 《연인》(에디시옹 드 미뉴, 파리)이 출간되고, 이 책은 2백만 부가 판매된다. 허구와 회고가 뒤섞인 이 자전적 소설로 뒤라스는 공쿠르상을 수상한다. 《연인》은 그가 알코올 중독으로 재활원에 머물던 당시 집필한 것으로 자신의 유년기,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어린 시절 연상의 연인에 대해 다룬다. 이처럼 사실과 허구의 모호해진 경계를 특징으로하는 방식은 ‘프랑스 신 자서전’이라는 용어를 획득하기도 했다. 특정한 자전적 사실을 서술자 혹은 등장 인물과 동일시하는 자서전적 장르 관습의 혼합이 뚜렷이 보이는 동시에 전기적 사실을 일관성 있게 일치시키는 데에 관해서는 무심하다.

윤이상 음악연구소가 평양과 통영에 설립된다.

1980년대 윤이상은 그의 으뜸화음 Hauptton 법에 대한 탐구와 평화, 화해의 염원을 담은 다섯 개의 교향곡을 작곡했다. <교향곡 1번>(1983)은 5월 15일 베를린 필하모니 창단 100주년

기념 연주회에서 소개됐다. <교향곡 1번>은 독일에 핵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평화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다. 윤이상의 <교향곡 2번>(1984)은 12월 9일 베를린 필하모니 공연에서 초연되었다. <교향곡 1번>과 비교해 <교향곡 2번>은 더 절제된 기악 편성법을 사용한다. 상징적으로 현악기는 긍정적인 기운을, 타악기와 금관악기는 파괴를 한기시킨다.

1985

뒤라스는 《고통》(P.O.L, 파리)을 출간한다. 이 책은 독일 점령 치하와 그로부터 해방된 후 첫 몇 달까지, 파리에서 뒤라스가 살아낸 지난한 시간을 다룬다. 뒤라스는 남편이 강제수용소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그리고 귀환 후 헌신적으로 그를 돌보았던 치열한 과정을 묘사한다. 또한 뒤라스와 피에르 라비에라고 불리던 프랑스 게슈타포 요원, 무슈 X가 유지했던 그들의 수상한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 뒤라스와 라비에의 만남은 점차 권력과 의존에 대한 격렬한 플레이로 치달는다. 그녀는 그에게로부터 남편에 대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었고, 그는 레지스탕스였던 그녀를 체포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녀와의 교제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다. 머지않아 나치의 패배가 극명해졌을 때, 뒤라스는 그에 대해 중언을 할 선택권이 있었으나 이를 유보한다. 《고통》이라는 회고록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부분은 뒤라스의 글쓰기 형식과 톤이 원본 노트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뒤라스의 많은 동료들이 《고통》이 담고 있는 진실의 개정을 수치스러운 왜곡이라 비난했지만, 이는 역사적 정확성을 전달하는 것이 뒤라스의 글쓰기의 주된 목표가 아님을 증명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 두 버전의 글을 통해 비극적 사건의 이해와 종결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진실과 역사에 대한 관념이 서로 비껴갈 수는 있으나 정서적 진정성과 우연히 만날 수도 있다.

윤이상의 <교향곡 3번>(1985)이 9월 26일 베를린 페스티벌에서 초연된다. 그가 ‘철학적’이라고 설명한 이 작품에서 음색은 서로 경쟁하며 연쇄적으로 펼쳐진다. 윤이상은 튀빙겐 대학의 명예교수가 된다.

1986

11월에 뒤라스는 《리베라시옹》에 기고한 <노르망디 해안의 창부>를 통해 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오직 무대에서만 읽힐 수 있는지 설명한다. 뒤라스는 《노르망디 해안의 창부》(에디시옹 드 미뉴, 파리)와 안 앙드레아에게 바치는 《파란 눈, 검은 머리》(에디시옹 드 미뉴, 파리)를 출간한다. 후자는 이성애자 여성과 동성애자 남성 간의 불안정한 삼각관계를 다룬다.

11월 13일 윤이상의 <교향곡 4번>이 도쿄 산토리홀에서 초연된다. 작품의 제목인 ‘암흑 속에서 노래하다’는 그의 친구이자 독일 문학가인 루이제 린저의 출판된 일기에서 차용한 것이다. 작품은 전쟁으로 짓밟힌 지역에서 성매매와 노동을 강요 당하는 동양 여성들의 억압을 되새겨 본다. 심포니의 첫 악장은 한국의 전통 시조 낭독처럼 간결하고 집중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87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선 전국적인 대규모 민주화 시위 6월 항쟁이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국에서 일어난다.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와 한국 서울 사이를 오가는 국제선 대한항공 858편이 상공에서 폭파된다. 두 북한 공작원들이 기내 짐칸에 폭탄을 설치해 놓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객 115명이 전원 사망한다.

1988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다. 1964년 도쿄 이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이었다. 북한과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쿠바, 에티오피아, 알바니아는 참여를 거부한다.

다섯 달 동안 혼수상태에 빠진 뒤라스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이내 의식을 되찾는다. 그는 계속해서 글을 쓰며 자신의 삶과 임박한 죽음의 주제에 집중한다.

윤이상은 독일연방공화국 대공로훈장을 수여받는다.

1989

이해 봄, 수천 명의 학생들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주의 개혁과 부패의 종식을 외치며 시위를 벌인다. 6월 3일 중국 정부는 광장으로 군대를 출동시켰고,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1990

뒤라스의 전 남편 로베르 앙텔므가 사망한다.

1991

장자크 아노가 《연인》을 영화로 제작한다. 그의 각색이 마음에 들지 않은 뒤라스는 이에 대한 대위법으로 《북중국 연인》(갈리마르사, 파리)을 출간한다.

1992

뒤라스는 그의 연인 안 앙드레아와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 《안 앙드레아 스테네르》(P.O.L, 파리)를 출간한다.

윤이상의 탄생 75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일본에서 열린다. 유럽에서도 각종 연주회와 강연이 개최된다.

1993

뒤라스는 자신이 글을 쓰는 방식과 쓰기에 대한 열정을 서술한 《글쓰기》(갈리마르, 파리)를 출간한다.

1994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1941-2011)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북한의 두 번째 최고지도자가 된다.

1995

뒤라스는 마지막 작품 《이게 다예요》(P.O.L, 파리)를 출간한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1995년 8월 1일에 쓰였다.

끝났다고 난 생각해. 바로 내 삶이 끝났다고.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제 완전히 무시무시한 여자가 돼버렸어.

빨리 오렴.

난 이제 입도 없고 얼굴도 없어.

윤이상의 딸 윤 정이 아버지를 대신해 프랑크푸르트에서 괴테 메달을 대리수상한다. 윤이상은 11월 3일 78세의 나이로 베를린에서 영면한다.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베를린 상원은 생전 그의 자택 부근에 위치한 베를린 가토우 공원묘지에 윤이상을 안장하기로 결정한다.

윤이상은 말년에도 끊임없이 작곡했다. 5월 9일 도쿄 산토리홀에서 <화염 속의 천사>(1994)가 초연된다. <글라리넷 5중주 제2번>(1994)가 9월 26일 베를린에서, <오보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4중주>(1994)가 11월 7일 빈 음악협회에서 각각 초연된다.

1996

뒤라스는 3월 3일 81세의 나이로 그의 파리 자택에서 숨을 거둔다. 그는 몽파르나스 묘지에 안장된다.

국제윤이상협회가 베를린에 설립되고, 오늘날까지 발터 볼프강 슈파러 박사가 이끌고 있다.

1997

아시아 금융 위기 때 한국 경제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에 의지하게 된다.

1998

김대중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야당의 대표였던 그는 종종 ‘한국의 넬슨 만델라’로 불리기도 했다.

생전에 윤이상은 남북한의 음악가가 함께 공연하기를 늘 열망해 왔다. 이 염원은 평양에서 그의 3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윤이상통일음악회로 마침내 실현된다.

2000

김대중은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내놓은 햇볕정책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그는 북한 공산주의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2000년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과의 역사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그 결실을 맺는다. 남북관계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이 만남 이후 남북은 직접 소통해오고 있다.

2010

1977년 독일어로 첫 출간된 윤이상과 루이제 린저의 저서는 해외에서 윤이상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어 왔다. 원래 박사학위논문이었던 주석 달린 영문 번역본 《상처 입은 용: 윤이상과 루이제 린저의 대담집》이 마침내 출판사 민속원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된다.

2016

한국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몇 달간의 시위 끝에 12월 9일 탄핵된다.

2017

유럽 음악계는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한다. 그리고 긴 침묵과 무지 끝에 그의 고국 한국에서도 드디어 그의 음악과 유산을 기념한다.

2018

윤이상은 타계 후 23년, 고국을 떠난 지 49년 만에 마침내 귀향한다. 가토우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던 그의 유해가 2월 23일 한국으로 송환되고, 3월 20일 그가 꿈에 그리던 고향 통영의 통영국제음악재단의 묘지에 안치된다.